

2016년 11월 9일, 구좌읍 세화리 조홍순씨 댁, 송정희 조사.

제보자1: 김순자(여, 1947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제보자2: 조홍순(여, 1924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**[제보자1]** 그 호랑이, (웃음) 호랑이, 호랑이 이제 어멍, 이제 어멍이 떡 헹 가다네 이젠

또 저 옛날 옛날에 그 저, 떡 헨 머리 이엉 가다네, 무신 호랑일 만난 거라.

“떡 하나만 저 떡 하나만 주민 안 잡아먹지. 안 잡아먹지. 안 잡아먹지.”

허당 보난

“팔 한 짹 주민 안 잡아먹지. 안 잡아먹지. 안 잡아먹지.”

허단, 어멍 몸뚱아리 다 쥐 벗어. 죽으난 이젠 뜰 성제 잇는 집이 온 거라.

딸 성젠 누웠이난에 이젠

“큰년아 큰년아 무신.”

우리 할망이 골았어.

“큰년아 큰년아 무시거 했디? 저, 나 느네 어멍이여. 문 읊아주라.”

허난, 문을 안 열어준 거라. 큰 큰 저 큰년이 문 안 읊아주나네. 목소리가 아  
니렌 허멍 우리 어멍 목소린 이제 아니렌 우리 어머니 손 혼 번 내밀어 보렌  
허난 손 내밀어 보렌 허난, 손 내미난 이젠 저 아니렌 까실락 까실락 까실락 아  
니렌 허난 또 이젠, 그 가네 지름을 불랑 왓어. 그 춤지름을 그 호랑이가 춤지  
름 불랑 완 손 영 내미난 이제 어멍카부덴 아 이젠, 보난 다른 동생은 다 잡아  
먹어 불곡 진 베꼈다 나간 그 저 물이 못 우에 물이 잊어난 모냥이라. 게난 그  
나무에 올라간 이젠 잊이나네. 또 호랑이가 그것도 먹젠 온 거 아니. 먹젠 와네  
영 보난 이젠, 그 물 연못이. 통에 확하게 빠진 거라. 그 나무에 올른 걸 몰라  
네. (웃음) 몰랑 빠지나네. 아니난 영 보나네 그 사람 잊이난, 아이가 잊이난 큰  
아이가 잊이난, 막 이젠 어떻 올라간디 들은 거라.

“큰년아, 큰년아, 어떻 헹 올라간디?”

들으난, 이제 자기가 도치로 아니 지름 불랑 올라 오렌 허난 또 지름 불랑 미

끌어 자빠지곡 헤난 또 이젠 어떻 헹 올라가난 막 헤난 도치로 찍엉 나가게 헌  
거라. 도치로 탕탕 찍어가나네.

“하늘님아. 하늘님아. 날 살리커나네 저. 그 밧줄을 내리곡 좋은 밧줄.”

**[제보자2]** 닷줄을 내리곡.

**[제보자1]** “닷줄을 내리곡. 나 죽이커랑그네 저 썩은 밧줄을 내리라.”

헌 거라. 거난 이젠 밧줄을 내리난. 올라가불곡 호랑인 그 나무에 가네 또 꺼  
꾸로 말헌 거라.

“날 살리커라그네 썩은 밧줄 내리곡. 날 죽이커랑그네 새밧줄 내립센”

골아부난 썩을 밧줄 내리난 올라가단 털어전 죽엇던 헌 말도 골아 들어나곡.

것도 막 길어 길어. 말허민이 나가 잘 몰라네 그냥 데강만 허는 거죽.

**[조사자]** 그거는 제목이 뭐꽈?

**[제보자1]** 응?

**[조사자]** 그거는? 호랑이 그거는? 호랑이?

**[제보자1]** 그거는. 호랑인가? 뭔? 옛날 옛날에 허멍 들어나 부난 알아지크라?

- 핵심어 : 호랑이, 떡, 밧줄, 연못, 해님, 달님, 닷줄